

# 가슴 졸였던 그날 밤도 이젠 추억이 되고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벌써 추억이 된 것인가.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그날 밤. 그렇게 바작바작 맘을 졸여 본 적이 또 언제 있었는가. 내 가족이 출마한 것도 아니요 예전처럼 맛있는 닭국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그저 몇몇 후보들의 낙선을 간절히 바라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니. 놀라운 건, 의외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하긴 '꼭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야 모두들 똑같은 게지.

아니, 저런 친구가 1위를 하고 있구나, 하며 잠시 눈을 붙였다 문득 깨 보면, 다행히 그가 2위로 처져 있고. 됐어, 됐어, 잠시 안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친구다시치고 올라오고. 참으로 밤새 애간장이 다 녹는 줄 알았지 뭐냐. 우선 세월호 인양

반대와 5·18 관련 막말의 장본인인 김진태 의원이 얹지락뒤치락 끝에 정말, 하마터면 당선될 뻔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하다. 동이 트고 난 뒤 오죽했으면 "그 친구 되는 줄 알고 식겁(食去)했다"는 댓글까지 올라왔을까.

5·18 관련 막말을 일삼았던 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천만다행으로 떨어졌다. 국회의장에게 '성희롱하지 말라'고 되지도 않은 말을 외쳤던, 게다가 '아까징기'를 섞어 헐서를 쓴 의혹을 받았던 이재재 의원이 떨어졌다. '막말의 달인' 민경욱·이언주 의원이 마천까지 신세가 됐다.

황교안 대표는 물론이고, 나경원·심재철 원내대표 등도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특혜한 장외로 뛰쳐나가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죄과(罪科)로 인한 당연한 업보(業報)다. 다행히 떨어져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다. 이들이 추종낙엽처럼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맞게 됐다.

선거가 끝나고 늘 그랬듯이 이러저러한 분석이 쏟아졌다. 그래 나올 만한 말은 다 나온 것 같으니, 여기에 또 비비비비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탬으로써 지면(紙面)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이야기하고 싶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이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잊비웃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불행하다"고 했던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첫 문장처럼, 패배한 쪽에서는 백 가지 이유를 들어도 모자랄 지 모른다. 가령 막장 공천에, 특 하면 터져 나오는 막말에, 위성 정당이라는 핏수에, 대안 부재와 리더십 부재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패인**

게다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기대했겠지만 아뵐새.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걸 우리 국민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마치 호수의 소설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큰바위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늘 진실하고 겸손했던 주인공 자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은 바로 우리 자신이 '큰바위 얼굴'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위대성에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사이, 덩달아 현 정부에 대한 인기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됐으니, 야당의 설 땅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다.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하지만 나는 여기에 통합당의 패인 하나를 새로 추가하러 한다. 그것은 그들이 마치 대위되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한 채 착각 속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되리라는 그 착각은 일부 언론의 부추김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이거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과연 야당이 어떻게 나가든 무조건 그들 편을 들어주는 언론이 있었으니. 부모가 오나오나하고 키우면 버릇이 더 나빠지는 자식처럼, 그들은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폐족처럼 근신(齋愼)했어야 할 그들이 어이없게도 단식 총해를 내거나 삭발을 하고, 어불성설(語不成說) 말도 되지 않는 독재 타도를 외친 것도, 배후에 그들을 다독여 주고 논리를 제공해주는 신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를 수 없다. 그래서 난 이번 야당의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그들을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 일부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편향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저러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은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최근 또 다시 김종진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추대됐다. 물론 그가 '4개월 짜리 위원장'은 못 하겠노라며 일단 강하게 거부의 몸짓을 취하고 있던 하다. 항일투사이자 훌륭한 법조인이었던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는 후광(後光)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함으로써 처음 정계에 발을 내디딘 사람.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도 있으며, 2012년과 2016년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으나 두 번 다 두 대통령에게 '뽕(烹) 당한 사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나는 4년 전 그가 민주당을 맡았을 때 바로 이 난(欄)을 통해 그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신랄한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2016년 1월22일, 이홍재의 세상만사 '사람이 그렇게도 없더라 말인가' 참조) 하지만 (?)의 말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가 뛰어난 책사(策士)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가 이번엔 통합당을

맡아서 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것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야당이 살아야 야당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정치적 감각도 갖추고 있다. 며칠 전 그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중 비전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한다"고 말한 데서도 그런 감각을 엿볼 수 있다. 2년 후면 누가 되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나이는 70세 언저리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새로운 '40대 기수론'은 먹혀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당장 통합당의 처지는 '사공 없는 나룻배' 신세다. 아니,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선장 자리만 노리고 서로가 다 두고 있는 꼴이다. 그래든 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밀당'을 거친 뒤 통합당이 '김종진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본다. 기왕에 그렇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은 그가 '정당 구조조정 전문가'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통합당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바꿔 놓기를 바란다. 대신 사심(私心)은 버리고, 두 번이나 '뽕' 당한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토사구팽 끄까짓 것,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당해 줄 수 있다는 각오로.

# “한전공대에 방사광가속기 배치해 국토균형발전 이뤄야”

범시민연합 발표회...국내 가속기 5기 영남·충청에 쏠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이 29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발표를 1주일가량 앞두고 호남권 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단·학계·종교계·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요구는 "산악화와 국제대형연구시설 배치에서 소외된 호남을 더는 소외시키지 말라"는 외침으로 수렴한다.

'호남 방사광가속기 설치 촉구 범시민연합'은 29일 광주시청에서 '호남 방사광가속기 대책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단체 상임대표인 이민원 교수(광주대·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기초 발표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가속기 같은 발전 자원이 없다는 것은 곧 지역의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방사광가속기 설치하는 곧 한전공대 설립 인가의 전제조건인 만큼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한전공대 설립 의미는 크게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처럼 공모 절차가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한전공대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며 "공모를 거치더라도 전제조건은 평가 기준의 합

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호남은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돼 연구자원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성을 이유로 이번 공모에서 소외시킨다는 논리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날 선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동신대 조진상 교수는 "방사광가속기의 최적 입지"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미국·일본은 국가균형발전과 재해 위험에 대비해 (방사광가속기 등 국제연구시설)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내 가속기 5기가 모두 영남·충청권에 쏠려있는 만큼 호남권 분산 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정치권, 종교계, 교단에서도 호남 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남 사·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만나 호남권 유치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국가 대형연구시설은 대전, 포항, 경주, 부산 등 충청과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

다"며 "호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호남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전남 4대 중대 종교계 지도자들도 이날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에 동참했다. 성명에는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모건출 전남기독교총연합회장, 리종기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장덕훈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교

구장, 자공 송광사 주지를 비롯한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등 지역 4대 중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전남·전북·광주 과학교 교장과 교직원 등 40여명과 광주시의회, 광주 5개 자치구의 의회 의장들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호남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군·정보당국, '김정은 정상적 국정운영'

국회 질의 회신...“공개활동 없지만, 감사메시지 등 발전”

군과 정보 당국은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 동향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면서 "국방부와 합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부지구 항공 및 방공공사단 관하 추격승격기연대'를 시찰한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통치 방식

인 '감사', '생일상' 등 메시지 발송을 통해 견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최근 확산한 김정은 신병이상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고령자 생일상 전달(4월 21일) ▲시리아 대통령 축전 단전(4월 22일) ▲삼지연시(4월 26일)·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4월 27일) 일꾼·노동자 감사전달 등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예비군 훈련 후반기로 연기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두 차례 연기했던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게 됐다.

국방부는 29일 "6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후반기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반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후반기 훈련 시작 일자와 유형별 훈련 방법은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준비 여건을 고려해 훈련 개시 45일 이전 다시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 4. 29.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0 원 중 금 299,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1,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300주를 병합하여 같은 액면주식 1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이의 제기 및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30.  
디에스퓨처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사내이사 김영만

###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 4. 29.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0 원 중 금 299,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1,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300주를 병합하여 같은 액면주식 1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이의 제기 및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30.  
디에스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사내이사 임예슬

### 자본감소공고

2020년 04월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10,000,000원중 금 56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450,000,000 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01,000주에 대하여 56,000주를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액면가 비율대로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101,000주를 4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 및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0년 04월 30일  
주식회사 오곡건설(200111-0170971)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02 대표이사 박일수

###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4월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금1,280,000,000원 중 금480,000,000 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800,000,000 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48,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8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 및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본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 및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4월 30일  
주식회사 신화토건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길 4 대표이사 임연석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3월 27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4월 30일  
도시이엔지 주식회사  
여주시 장군산길 53, 2층(오림동) 청산인 정은숙

###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당 회사는 2020년 4월 17일 10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의 해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이 공고 게재일부터 2개월이내에 이의나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주식회사 미래산업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179-22(신창동) 청산인 김현희

###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0년 4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금350,000,000 원 중 금2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100,000,000원으로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25,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발행 주식총수35,000주를 1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0. 4. 30.  
주식회사 남해관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69-6 대표이사 하태균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나방**

광교문의 (062)227-9600  
신문국 (062)220-0551  
예행국 (062)220-0550

### 산행안내

5월2일(토)  
▲광주중앙신약회 5월2일(토) 여수 천혜의리산 연도 소리도 동백꽃 평방산 트레킹, 평안동 롯데슈퍼와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와 03:20, 영주체육관 정문 03:30, 안국별원와 03:40, 문

5월13일(수)  
▲광주중앙신약회 5월13일(수) 전남 장흥사자산 - 보성일림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30, 교직원공제회와 07:40, 예술회관우문 07:50, 각와동 연대물류와 08:00\*다음카페 광주중앙신약회 ☎010 8612 4504, 010 8612 3177

5월13일(수) 전북 부안 유금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30, 교직원공제회와 07:40, 예술회관우문 07:50, 각와동 연대물류와 08:00\*다음카페 광주중앙신약회 ☎010 8612 4504, 010 8612 3177